

력한 힘”이래. 그러면서 유대인 증오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이 한눈팔지 않고 전쟁 준비에 몰두하게 만들어 나치스 정책에 수행에 중대한 역할을 했잖아. 공동의 적을 설정하면 집단의 에너지를 한데 모을 수 있어.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이 발휘하는 힘도 그런 맥락 아니겠니?

얘기가 길었는데, 원대한 비전에 버금갈 크고 대담하며 도전적인 목표(BHAG)를 잡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첫째, 대담하리만치 큰 목표를 설정하되, 피부에 와닿도록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가시화한다.

둘째,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사업의 방향을 담대하게 전환 내지 확대해본다.

셋째, 엄청나게 잘나가는 기업을 롤모델 삼아 흉내 내며 좇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뻔뻔하도록 노골적으로 공동의 적을 설정하고 밟아버리겠다는 목표를 정한다.

강력한 BHAG는 구성원들의 의욕을 한껏 고취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조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단다.